

시와 카운티, SODO 에 새로운 쉼터 오픈

City of Seattle 의 Human Services Department(HSD, 복지부) 및 King County 의 Department of Community and Human Services(DCHS, 지역사회복지부)는 시애틀 SODO 지역에 새롭게 개선된 연중무휴 탈집중 쉼터를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쉼터는 지원 및 보금자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COVID-19 확산에 대비하여 고객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 보건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쉼터는 2021년 제 1분기까지 만실을 목표로 11월 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쉼터에는 총 275개의 침상이 구비될 전망입니다. Salvation Army 는 기본/일일 쉼터를 포함하여 기존 프로그램 4개를 지원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이번에 신설된 연중무휴 쉼터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전되는 프로그램들은 City Hall 및 Fisher Pavilion(City Hall 프로그램 탈집중화 현상이었음)의 기존 시애틀 시 쉼터 프로그램들이며, King County 가 4th Street 및 Jefferson Street 와 King County Administration Building 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이전을 통해 Fisher Pavilion 과 City Hall 을 겨울 악천후 대피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특정 시점에 DCHS 는 Recovery Café 인근 임시 지정에서 SODO 현장 신설 쉼터로 알코올 중독 치료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당 건물은 King County 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물로, 원래 지역 의료센터의 부담을 덜기 위해 COVID-19 검역, 격리 및 회복 센터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COVID-19 대응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쉼터에는 산불은 물론 COVID-19 에 대처하기 위한 고품질의 공기 여과 시스템, 물리적 공간 및 위생 시설이 마련됩니다. 지난 9월, 이 시설은 임시 산불 대피 쉼터로 사용되었으며 하루 24시간 80-1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쉼터 신설 자금은 연방 및 지방 응급 자원을 통해 조달했으며, King County 의 건물 임대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추가 쉼터 자원

시장의 2021년 예산 계획의 일환으로, 시애틀 시는 향후 수개월간 신설된 쉼터 자원을 위해 3,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원들을 통해 임시 호텔 객실 300실과 개선된 연중무휴 쉼터의 새로운 공간 125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장의 제안에는 Rapid Rehousing and Diversion(신속한 새 보금자리 마련 및 전환)을 위한 자금 확대도 포함됩니다.